

김종인-안철수 대표 선거 막판 공방 치열

안철수 "지금 야당으로 정권교체·변화 기대 못해" 김종인 "일부 지역 지지로 대권 쟁취 불가능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4·13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거대한 기득권 양당체제를 깨고 3당 체제를 만들어 달라"며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치인을 위한 양당 체제를 깨고 국민을 위한 3당 체제를 만들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4년 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들에게 온갖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안 지키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있다"며 "거대 양당을 또 찍어주면 4년 뒤에 똑같은 모습 또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새로운 선택을 할 시간이다. 답대에게 국민의당을 선택하면 혁명적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박

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겁먹고 만년 야당, 만년 2등에 안주하는 무능한 야당을 대체해 정권을 교체할지"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1번과 2번은 기회가 많았는데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며 "이번에는 3번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달라. 국민의당이 거대한 양당에 맞설 수 있도록 놀라운 의식을 만들어 주면 수년 정당 대안 정당 강한 정당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로지 정치인을 위한 정치, 권력자를 위한 정치, 패권과 기득권을 위한 정치였다"며 "거대 양당은 몸집은 달라도, 주장은 달라도 결국 똑 같다"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 "낡고 무능한 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을 찍었던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다"

며 "지금의 야당으로는 정권교체는 커녕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정치가 바뀌기 원하면 이번에는 3번이다"며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1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를 겨냥 "일부 지역의 일부 지지만으로 전국을 상대로 하는 대권을 쟁취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김정우(군포갑), 이학영(군포을) 후보 합동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안 대표가 "더민주를 만년 2등에 안주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나는 더민주가 만년 2등에 안주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더민주를 지난 대선 당시 통합민주당으로 대권을 쟁취하려고 애를 썼다. 그 이후에 야당이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대권을 향해, 다시 정권 창출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만년 2등에 안주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서 경기도당에서 발표한 대국민성명에서 차기 대선주자군에 정계은 퇴한 손희구 전 상임고문을 포함한 데 대해 "과거에 대권주자가 된다고 했던 인물 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권주자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오늘 아침 손 전 고문의 이름을 넣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와 대선출마를 설득할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대권주자가 돼라고 설득한 부분이 없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 지역구 목표 의석수에 대해 김 대표는 "내 일모래(18일) 투표 결과를 봐야 한다. 미리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지금 여러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과연 몇 석이 얻어질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있어야 노동개악 저지" 투표 호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4·13 국회의원총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1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대책위 회의를 갖고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할 수 있었다"며 "노동개악을 막을 경제민주화당, 재벌의 골목시장 진출을 막을 원조 복지정당 정의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교체를 위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진정한 대안 정당 정의당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한다"며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의 가장 큰 괴리가 예상되는 정의당에게 정당투표를 해 제3당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재벌들의 횡포와 갑질을 근절하는 남양유업법을 만든 정당이 정의당이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헌신 해온 정당이 정의당"이라며 "재벌의 돈을 받지 않아 깨끗한 기득권에 당당한 정의당만이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식물장부가 아니라 고베 풀린 맹수를 격정해야 할 때"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의료민영화 허용하는 서비스법과 노동개악을 몸싸움을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고 우려했다.

김무성 대표 부산 유세 대권 출마 의지 표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자신의 지역구(부산 중구·영도구)를 무반복으로 방문해 대권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중구 부평동 강동시장 유세에서 "여기가 고향인 김무성이 좀 더 힘을 받아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더 큰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격차는 사회가 됐다"며 "남은 인생은 격차를 없애고 갑질을 없애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제가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당 대표는 그만둘라고 한다"며 "이제 더 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영도구 남항시장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이번 총선에서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공천 신청자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 앞에 4년 뒤에는 또 4년이 될 지 2년뒤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뚜렷하게 국민공천제로 여러분이 선택해 제 후계자가 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모퉁이 일대에서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운행과 학생들이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높은 사전 투표율 전복 최종 투표율 관심 집중

19대 총선 비해 높고 17대 비해 관심 적어 50% 중후반대 예상

전북도 사전투표율이 17.32%로 전남지역(18.85%)에 이어 지자체 중 2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기에 따라 4·13 총선 전북지역 최종 투표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전투표에 의한 투표율 증가를 예상하기 위해 사전투표가 최초로 시행된 제6회 지방선거(2014년 6월4일)의 투표율 증가를 살펴 보면, 당시 전북지역 최종투표율은 59.9%를 기록했다. 앞서 사전투표 없이 치러진 제5회 6·2 지방선거(2010년)의 최종 투표율은 58.4%이다.

두 번의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증가폭은 적으나 당시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의 대국민적 아픔이 있어 '조용한 선거'의 물결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

표의 최종투표율 증가에는 효과가 있다는 평이다.

총선 분위기에 의한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지난 제9대 총선에서 전북지역 투표율은 58.0%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 사상 처음으로 전국 평균(54.3%)에 미치지 못한 투표율이다. 당시 민주당은 전북지역 11석 중 9석을 차지했다. 전체적인 총선 평은 도내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바람으로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간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냉담했다는 평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동으로 '노무현 살리기' 열풍이 불었던 시기인 제17대 총선의 전북지역 투표율은 61.2%를 기록했다.

제17대 총선의 제20대 총선과 비슷한 점은 야권분열이라는 특징을 뽑을 수 있다. 하지만 제20대 총선은 '늦은 선거구 확정, '공천 파동' 등으로 제17대 총선과 같은 열풍을 기대하기에는 이슈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사전투표율이 최종투표율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총선 투표율 등을 고려해 볼때 이번 4·13 선거 투표율은 제19대 총선에 비해서는 올라가지만 제17대에 비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적다는 게 정가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전북지역 투표율은 지난 19대 보다는 높고 17대 보다는 낮은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60%의 투표율까지는 어렵고 50% 중후반 대를 보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새누리 전북도당 48시간 철야 유세

새누리당 전라북도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황술)는 11~12일 도내 전역에서 깨어라 전북 48시간 철야유세에 돌입한다.

특히 전주갑과 을 병 지역은 전주권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대학로 등을 돌며 거리청소와 함께 유권자 지지호소를 병행한다.

또 군산과 익산 갑, 을 지역은 봄을 맞아 벚꽃축제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축제장 봉사활동에 나서고, 이 밖에도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4.13 선거 RUN·RUN·RUN

정운천 후보, 불법 괴문자 발송 경찰에 고발

새누리당 정운천 전주를 후보는 11일 전주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불법 괴문자에 대해 전주완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영점 수사를 촉구했다.

정 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주를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정운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됐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불법성거를 조장하는 흑색선전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전주 지역에 흑색비방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흑색선전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주 기자

강동원·박희승 후보, 이용호후보 색깔 발언 비난

전라북도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후보들이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가 참여 정부 운동권을 좌파로 매도하며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를 펼쳤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무소속 강동원 후보는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가 지난 10일 전북 임실군 '오수장날'을 맞아 오수읍 삼거리에서 있던 거리유세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참여정부 민주화운동권 인사들을 좌파로 매도하며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를 한 것에 대해 공개사회와 국민의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동원 후보는 "야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가 시대착오적으로 참여정부 참여했던 민주화운동세력을 좌파 운운하며 색깔공세를 펼친 것에 놀란다. 이는 수구보수세력이나 새누리당이 야권을 공격할 때는 쓰는 수법이자 주장으로 수구보수 정치세력이었던 김종필 자민련 인사들과 가까웠던 이용호 후보는 스스로 수구보수인사이자, 사이비 야권인사를 자초하는 발언이 아니다. 이용호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도 "이용호 후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후보는 "그간 국민의당은 한상진 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원 등 정체성 논란에 휩싸여 왔으나 이번 이용호 후보의 연설에서 그 정체성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118 민주회를 주도한 호남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이용호 후보와 국민의 당이 호남을 팔아 국회입성에만 혈안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이상 야권 교체를 운운하며 민심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김성주 후보, "유령과 싸움하는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전주병)는 "정동영은 김성주와의 싸움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라"며 이번 선거는 김성주와 정동영의 대결이다. 유령과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했다.

김 후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동영 후보는 '문재인 재선이나?' 아니면 '정동영 부활이나?'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김성주나 정동영이 내에 대한 전주시민의 선택인 것이며, 문재인 재선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정동영에 대한 입장이라며 "전주를 벗어나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최악의 패배를 안겨준 여당의 대선주자였음을 환기시킨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마치 문재인 대 정동영의 대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실이라 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김성진 후보, 여·야 연정실천위원회 구성 촉구

새누리당 김성진(전주 병) 후보는 11일 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협의체인 '전북발전 여·야 연정실천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성진 후보는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보다는 중앙정치에만 매달리는 지난 30여년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 지역의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 지역 발전을 구체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김 후보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지방정부에 구체적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발전 여·야 연정실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전북은 새만금 탄소산업, 금융타운 조성, 농·생량바이오산업, SOI사업 등 지역의 산적해 있는 현안 타개를 위해 진중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가 예산 확보 등 전북을 위해 '전북발전 여·야 연정실천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조배숙 후보, "경제적 약자 위한 지원 개선"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 후보(익산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시 담보나 보증서를 후취담보로 전환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정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을 서비스업까지 확대 지원하고 최저 급여 적용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청년 고용과 창업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는 "소위 갑을 관계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장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에 연동하는 하청업체 납품단가의 인상을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임업연계 보호를 위해 유통업체와 계약 체결 시 조정위원회의 확인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김춘진 후보, 클린선거 동참 호소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선거구의 김춘진 후보는 11일 4.13총선 열기가 과열되는 것과 관련 우려를 표시하며 후보자들에게 클린선거 동참을 호소했다.

김춘진 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의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및 지지자들과 함께 클린선거 실천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각종 불법선거운동으로 얼룩져 있다"며 "캠프가 솔선수범하여 남은 기간 공명선거를 치르자"고 강조했다. 또한 타 후보들에게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그동안의 불법행위와 결별하고 클린선거를 치르는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